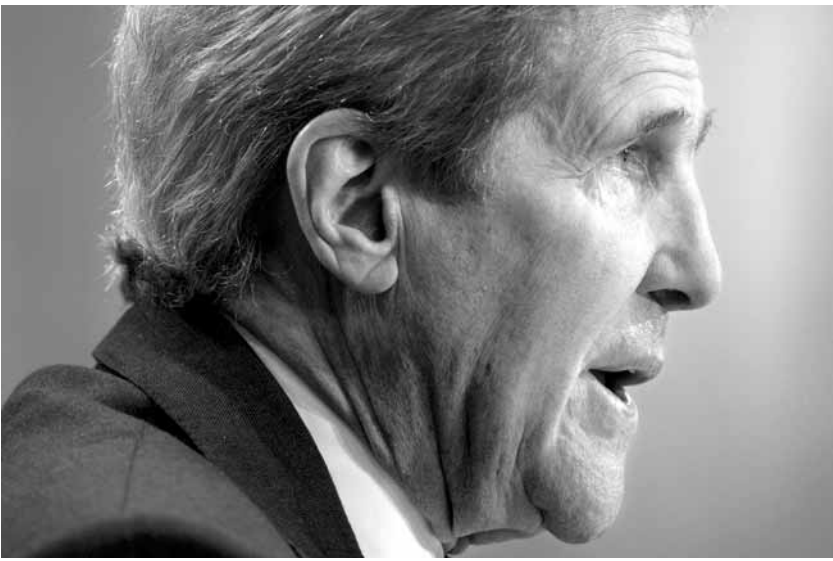


존 케리 美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먼저”



왕이 中 외교부장 “사드 철회해야 제재 협조”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국 스텔스기 탐지 가능 레이더 설치

中 외교부 “美 도발 대응 조치”

중국인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설치 중인 고주파 레이더를 통해 F-22 랩터 등 미국의 스텔스기들의 움직임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3일(현지시각) 더내셔널인터라스트(TNI), 미해군연구소(USNI) 등에 따르면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 건설한 인공섬 콰데론 암초(중국명 화양자오·華陽礁)에 설치 중인 고주파 레이더는 F-22 랩터, F-35 합동타격기(JSF), B-2 스프릿 폭격기 등 미국의 스텔스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공미사일 망에 스텔스기의 비행경로를 알려줘 대비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텔스기 탐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 레이더는 B-2, F-22, F-35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CSIS는 중국이 건설한 7개 인공섬 레이더 탐이나 포상(砲床), 방커, 헬리콥터 이착륙지, 부두 등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각) 워싱턴D. C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건설이 미국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섬들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주권을 독립적으로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미사일 구축함 등 첨단무기가 매일 남중국해에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레이더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중국은 또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용성다오(永興島))에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J-11 선양기와 JH-7 시안 등 주력 전투기들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전투기까지 보내면서 인공섬의 군사기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워싱턴연방을 통해 중국 본토에 보내 대

# 美·中 대북 제재안 ‘진전’ 사드 입장차는 ‘여전’

## 워싱턴D.C. 외교장관 회담

## 이번주 안보리 결의안 채택

## ‘北·美 평화협정’ 체결엔 이견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각) 이날 워싱턴D. 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협의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으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핵심 제재항목에 대해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과 관련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소극적 제재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미국과, 대화를 외면한 채 압박에 중점을 둔 미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촉발시켰다는 중국의 속내가 정면으로 맞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안보리 결의와 연계시키면서 양측이 상당한 격론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식으로 ‘조건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 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화 통신의 논평대로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는 논리로 공식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와 ‘사드’를 연계하는 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에 대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중국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측이 대립한 또다른 쟁점은 평

화협정 논의였다. 중국 측은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를 수용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었다. 왕 부장이 케리 장관의 면전에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부장은 회견에서 “나는 미국이 우리 제안에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놀랄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야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이 같은 격론 속에서 회담이 길어져 당초 이날 오후 3시15분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오후 4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인들 “최대 주적은 북한”...러시아 2위

## 3위 이란·4위 중국·5위 IS

미국인들이 최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미국인들이 느끼는 최대 ‘주적’(主敵)으로 꼽히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강행 등 국제사회를 향한 잇단 도발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7일 미국 전역의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실시해 23일(현지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대의 적’으로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16%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15%), 이란(14%), 중국(12%)이 뒤를 이었고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5%)가 5위를 기록했

다.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18%를 차지해 최대 적국으로 꼽혔고 북한이 15%로 2위, 중국이 12%로 3위였다. 러시아와 북한의 1, 2위가 바뀐 셈이다. 특히 매년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최대 위협으로 지목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데 이어 무기용 핵물질 제조를 위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빼냈다. 그렇지만 2006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인의 ‘최대 위협’으로는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이 지목됐다.

또 미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8%에 그치며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 “中 권력층 연루 ‘왕젠린 게이트’ 증거 있다”

## 시진핑 주석 친누나도 포함

중국 최고 부자인 왕젠린(62) 회장이 이끄는 부동산·엔터테인먼트 기업 완다(萬達)그룹이 중국 권력층의 가족과 친지를 주주로 끌어들여 강력한 정경유착을 구축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 베이징 특파원인 마이크 포사이스 기사는 23일 트위터에 작년 4월 완다 그룹의 정경 유착을 폭로한 NYT 기사를 뒷받침하는 완다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손이 보도했다.

포사이스 특파원이 공개한 문건은 왕자오위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왕신위가 완다 그룹의 4대 주주이며, 자칭린 전 전국정협 주석의 사위 리보타이



왕젠린 회장

경영하는 우구펑투 자자문사와 유명 연예인의 모친 리취성이 완다 주주임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유명 연예인의 이름은 xxx로 처리돼 있어 현 최고위 권력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작년 4월 28일 NYT 보도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친누나 치차오차오, 왕 전 상무위원의 아들 왕신위, 리보탄 등이 완다의 주주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건의 완다 그룹 주주회의 회의록이다. 포사이스 특파원은 리취성이 완다의 주주가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 英 여론조사, EU 탈퇴 51%·잔류 49%

## 탈퇴 지지율 일주일새 7%p↓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막기 위한 협상 타결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탈퇴와 잔류의 지지율이 이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조사보다 탈퇴 지지율이 급락해 브렉시트를 배려는 여론이 다소 잦아든 것으로 풀이됐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38%,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37%였다고 24일 보도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6월 23일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5%였다.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하면 EU 탈퇴를 바라는 이는 51%, 잔류를 희망하는 이는 49%가 된다.

유고브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탈퇴 지지자가 45%로 잔류 지지 36%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브렉시트

지지율은 이번엔 7%포인트 하락했다. 잔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으나, 미결정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준에 탈퇴를 지지했다가 결정을 보류한 이들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더타임스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안보·경제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 설득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노력이 통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등의 브렉시트 지지자는 초기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의 요구를 반영해 19일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26%가 ‘양호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해 ‘충지 않은 협상’이라고 답한 것을 바라는 이는 51%, 잔류를 희망하는 이는 49%가 된다.

유고브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탈퇴 지지자가 45%로 잔류 지지 36%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브렉시트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사무실 전용
- 20층 중 20층
- 153평, 76평, 38평
- 대형주차장 완비
- 전망최고, 관리비 저렴
- 매매 - 평당 3백만원

공동중개환영 H. 010-3605-5000

#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